

# KDF

## 민주주의 리포트

Issue & Review on Democracy

2022년 5월

제72호

# 세대·젠더 갈등 프레임과 한국사회 불평등 현실

신진욱

중앙대학교

발행일 2022년 5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문의처 [edit@kdemo.or.kr](mailto:edit@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 세대·젠더 갈등 프레임과 한국사회 불평등 현실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주제는 민주주의, 정치담론,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사회불평등 연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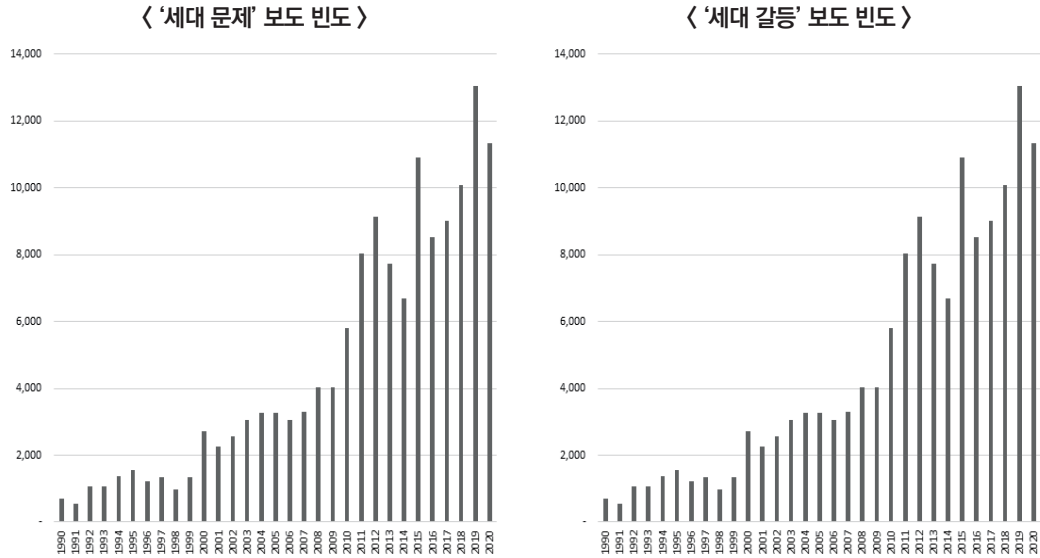
세대갈등과 청년세대 남녀갈등에 관한 담론이 혼란스럽게 범람하는 가운데, 선정적인 대중담론들이 정치적·이념적·상업적 목적에 오용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세대 간 차이와 갈등, 남녀 간 인식 차이는 현실에서 부재하지 않지만, 지금 정치권과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갈등 프레임은 실제 현실의 갈등구조와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할 뿐 아니라,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언어와 사유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갖고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대안담론을 풍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세대 담론의 범람과 문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세대 갈등’과 청년세대 내의 ‘젠더 갈등’이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러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계층, 이념, 정치, 지역격차 등 다른 많은 갈등 이슈와 마찬가지로, 세대와 젠더 차이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도 많은 한국인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통용되고 있는 방식의 세대·젠더 갈등의 프레임이 과연 실제 한국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로 사회갈등의 심층구조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유의한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세대문제와 세대갈등을 말하는 미디어 담론이 급증했고(〈그림 1〉), 정치권은 지금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거나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기성세대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청년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 한다. 청년들의 온라인 공론장 일각에서도 극단적인 기성세대 비난 담론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다수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갈등이 세대 갈등일까? 기성세대에는 안정계층이 많고, 청년세대에 한국사회 불평등의 희생이 집중되고 있을까?

〈그림 1〉 세대 문제와 세대 갈등에 관한 언론 보도 빈도 추이, 19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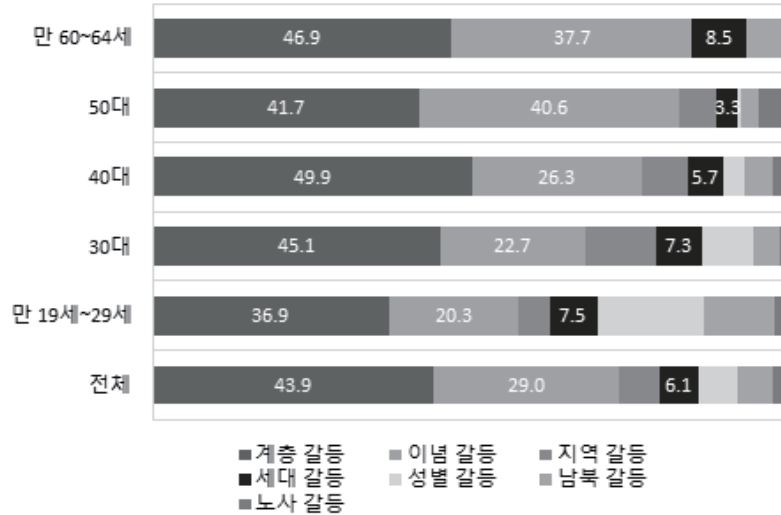


※ 비교: 18개 전국일간지 및 경제지, KBS·MBC·SBS·YTN 등 4개 방송사 기사 분석.

세대 담론의 범람 속에서 상반된 세대 서사와 관념들이 혼란스럽게 공존하고 있고, 선정적인 담론들이 정치적·이념적·상업적 목적에 오용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중·노년층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을 구성하고 있고, 이 세대들이 자원을 독점하여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식의 세대불평등론이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년 세대의 다수를 이루는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고종사자,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노인세대의 고령노동과 빈곤, 세계최악의 자살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며, 이 같은 현실이 그 자녀들에게 이전되는 계층세습이 빈번히 공론화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세대 담론들 내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청년·중년·노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고 세대 내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면,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를 ‘기득권 기성세대’와 ‘희생자 청년세대’ 간의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담론화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사소한 문제인가? 최근 몇 년 간 한국사회 갈등 인식을 묻는 많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는 계층격차를 가장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보-보수 간의 이념갈등을 중요시한 데 반해 세대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응답은 모든 세대에서 10% 미만이었다(〈그림 2〉).

〈그림 2〉 한국사회의 여러 갈등의 심각성 인식 비교



※ 출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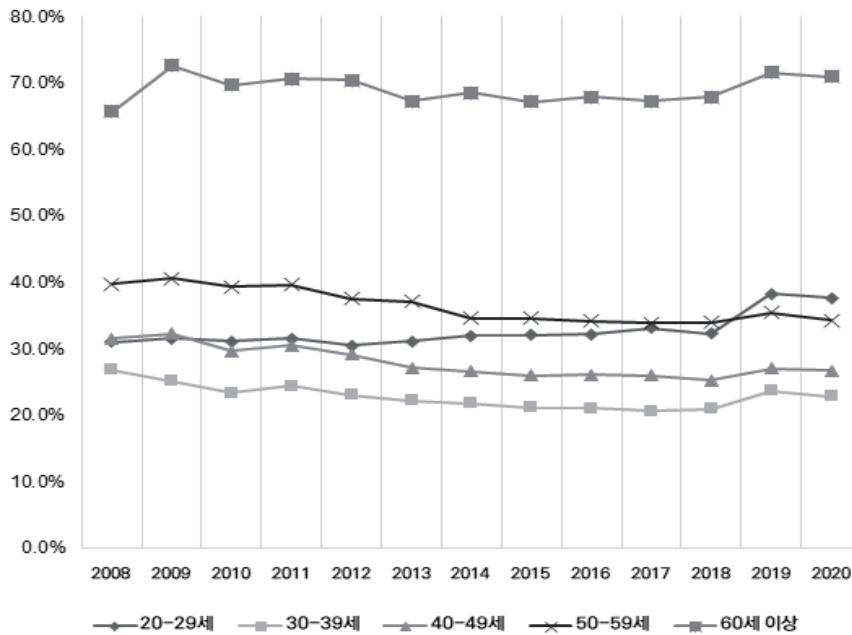
이것은 물론 세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세대 간에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고, 일부 직업부문에서 회사조직 내 위계가 동시에 세대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때 갈등은 세대갈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정년, 연금, 노인·청년복지 등 정책 이슈에서 세대 간에 이익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최근 조사에서 모든 연령대 응답자의 70% 가량이 계층·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이는 정치권과 미디어의 세대 갈등 프레임이 과장되었거나, 많은 사람이 중시하는 갈등을 세대 문제로 전치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2 세대별 경제현실의 실상

실제로 한국사회 계층 간 격차와 갈등 현황을 보면, 기성세대가 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청년세대가 그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식의 세대불평등 프레임은 모든 세대 내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청년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한국사회 상층계급의 실체를 가리는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난다. 연령대별로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소득과 사회보장 격차,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불평등도와 빈곤율 등 많은 지표를 비교해보았을 때, 세대 내

격차 문제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2천 년대 들어 우려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특정 지표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연령대 또는 출생코호트의 상황이 더 악화하거나 개선되는 식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표를 아울러 특정 세대가 더 좋은, 또는 더 나쁜 조건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림 3〉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08~2020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상층계급을 구성하는 집단이 중·노년 세대에 국한된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기업임원이나 관리·전문직, 사무직 일부 부문에서 대체로 중년층이 조직 위계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시적 분배구조를 보았을 때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20~30대 상층집단이 과거의 20~30대 상층집단보다 더 이른 나이에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일례로 연령대별 자산 상위계층이 얼마만큼의 부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상위 2%의 '슈퍼리치'의 경우에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산규모가 특별히 크고, 그 아래의 자산상층부는 40대 역시 50~60대 못지않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표 1〉). 또한 연령대별 자산상층부가 그 연령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자산 중 얼마만큼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상위 2%의 점유율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지만 그 아래 자산상층부의 점유율은 30~40대도 대단히 높아서 30대의 자산 상위 30%가 30대 전체의 보유자산 중 83%를 가지고 있다.

〈표 1〉 연령대별 자산 상위계층의 점유율

구분	60 대 이상	50 대	40 대
상위 2%	33.0 억원	36.0 억원	28.9 억원
상위 2%~5%	16.8 억원	15.6 억원	16.0 억원
상위 5%~10%	10.7 억원	10.5 억원	10.5 억원
상위 10%~20%	6.6 억원	7.0 억원	6.7 억원
상위 20%~30%	4.2 억원	4.9 억원	4.6 억원

※ 출처: 이원재·고동현·김민진. 2021.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 LAB2050.

이처럼 한국사회 불평등 현실의 핵심은 기성세대 대 청년세대의 이해갈등이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문제에 있다. 그러므로 막연히 청년이라는 세대 집단을 희생자화하는 담론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한편으로 중·노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그와 동시에 청년세대 내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는 방향의 대응이 요구된다.

### 3 '이대남'과 '젠더 갈등'이라는 성별화된 담론의 문제

세대불평등 담론이 한국사회 계급구조와 각 세대 내의 계급불평등을 세대 문제로 치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대 담론의 성별화된 변종인 '이대남' 담론 역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제반 구조적 문제들을 특정 세대의 문제로 왜곡한다. '이대남' 담론이 전형적으로 한국사회 현실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프레임은, 20대 남성의 다수가 반페미니즘적 성향과 복지, 인권, 성소수자 등 많은 사회 이슈에서 보수적 또는 심지어 극우적 태도를 갖고 있고, '이대녀'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세대, 특히 20대 내의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에서 우선 타당한 점은 두 가지다. 첫째, 20대 남성들 사이에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천관울·정한울, 2019). 이 같은 태도는 다른 인접한 인식구조, 예를 들어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 한국사회에 성차별 구조는 많이 완화되었다는 인식,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라는 인식 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갈등을 조장하는 과장된 담론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

둘째, 오늘날 20대 내에서 남녀 성별 간의 인식 차이가 여러 면에서 다른 세대보다 크다는 것도 사실이다(국승민 외, 2022). 무엇보다 선거에서 투표 성향의 남녀 간 차이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20~30대 남녀 간 투표성향 차이는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으로 오면서 크게 벌어졌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현재 다른 어느 세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거의 어느 청년세대에서도 이만큼 뚜렷하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이다.

그런데 이상의 두 가지 부분적 사실로부터 많은 성급한 일반화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20대 남성의 다수가 페미니즘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20대 여성들과 큰 인식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40대 이상 윗세대 남성들이 20~30대 남성보다 더 진보적이라거나 20~30대 남성들이 가부장제와 동성애 등 모든 이슈에서 일관되게 보수적인 것으로 현실을 단순화해선 안 된다. 20대 내의 남녀 갈등, 또는 20대 남성들의 어떤 경향성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40대·50대·60대 이상 세대의 남성들 역시 그 세대 고유의 우려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정 세대 문제가 아니라, 각 세대의 각기 다른 젠더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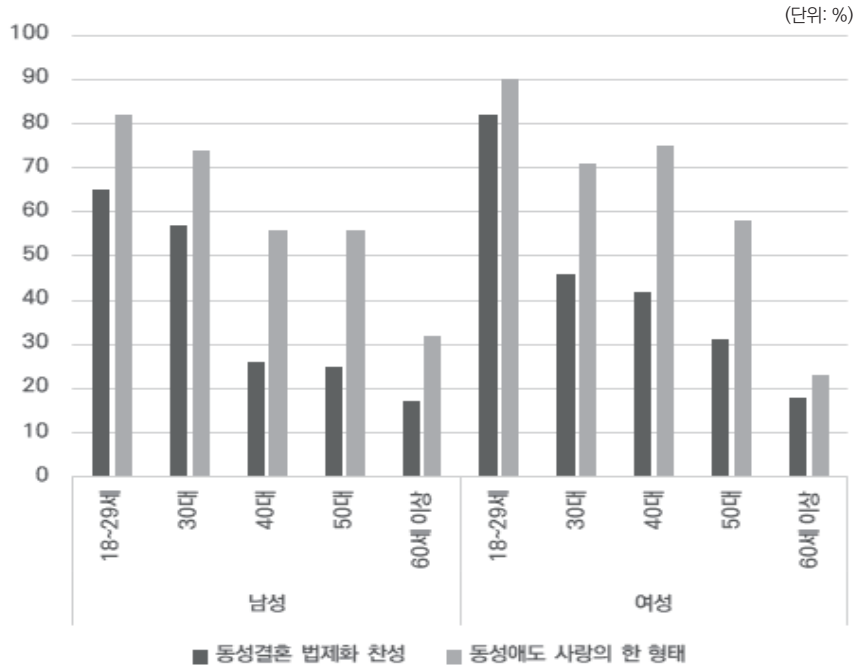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20~30대는 남녀 모두 전통적 성역할과 가부장적 문화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40대 이상보다 상당히 더 높을 뿐 아니라, 가부장제에 대한 반대는 심지어 20~30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박선경, 2020). 물론 청년 남성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반감은 '역차별' 의식이나 이른바 '마이너리티 의식'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페미니즘에 대한 동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노년 세대의 다수가 당연시하고 익숙해져 있는 가부장적 사고와 거리가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에 수행한 인식조사는 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② 여자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신경써야 한다; ③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④ 여자들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동등한 권리만을 주장한다, 등의 문항에 대한 의견을 지표로 하여 성별·세대별로 성평등 의식을 측정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내의 남녀 간 차이는 20대가 가장 컸고 30대가 그 뒤를 따랐으며, 40대 이상은 남녀 차이가 훨씬 적었다. 그러나 20~30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은 40대 이상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남녀 차이가 큰 이유는, 젊은 여성들의 성평등 의식이 윗세대 여성들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동성애 이슈에서도 '보수적 이대남'이라는 단순화된 담론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에서도 20대 남성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다른 연령대의 남성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8~29세 남성은 65%, 30대는 57%였던 데 반해, 40대 남성은 26%, 50대 남성은 25%, 60대 이상 남성은 17%로 청년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18~29세 남성 중 무려 82%, 30대 남성 중 74%나 되었는데 이 비율이 40대와 50대 남성에서는 56%, 57%로 크게 낮아졌고 60대 이상 남성에서는 32%에 불과했다. 세대 내 남녀 간 차이를 보면,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 20대 여성은 82%, 20대 남성은 65%가 찬성하여 남녀 간에 17%p 차이가 나는데 비해 50대 남녀 간에는 6%p, 60대 이상 남녀 간에는 1%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50대 이상은 남녀 할 것 없이 동성결혼 찬성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그림 4〉 성별·세대별 동성결혼 법제화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8호. 한국갤럽 2021년 5월 18일, 20일 조사.

## 4 결론

경제적 이해관계, 가치관, 인식구조의 차이 등에 따른 다양한 잠재적 갈등이 사회 내에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잠재적 갈등 가운데 어떤 것은 명시적 갈등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데 비해, 어떤 것은 격렬히 담론화되고 나아가 집단적 갈등으로 발전한다. 이처럼 잠재적인 갈등이 명시적인 갈등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거시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사회현실과 사람들의 경험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재현하는 상징적, 담론적 실천들이 개입해 들어온다(전상진, 2018). 다시 말해 사회구조적 상황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집단적 균열로 발전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와 상호작용의 심급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균열은 구체적인 세력관계와 상호작용의 전개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집단화되고 정치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어떤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본질적이고 중대한가,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공론장에서 올바르게 담론화되고 있는가를 예민하게 관찰해야 한다.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은 현실에서 부재하지 않지만, 지금 정치권과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세대 불평등’의 프레임은 모든 세대 내의 불평등과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언어와 사유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신진욱, 2022). 청년세대 내의 남녀 간 인식 차이와 젊은 남성들 내의 반페미니즘적 정서는 존재하지만, ‘보수적 이대남’이라는 상상적 관념을 중심으로 하는 성별화된 세대 담론은 실재하는 20대 남성의 실상을 왜곡할 뿐 아니라 모든 세대 남녀에 해당되는 젠더 문제들을 밀어낸다. 실재하는 불평등과 갈등구조를 분명히 진단해야 제대로 된 통합이 가능하다.

## 참고문헌

- 국승민·김다운·김은지·정한울. 2022. 『20대 여자』. 시사N북.
- 박선경. 2020.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 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2): 5-36.
- 신진욱. 2022. 『그런 세대는 없다 -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개마고원.
- 이원재, 고통현, 김민진. 2021.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 LAB2050 .
- 전상진. 2018. 『세대게임』. 문학과지성사.
- 정한울·이관후. 2018.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천관울·정한울. 2019. 『20대 남자』. 시사N북.

## 세대·젠더 갈등 프레임과 한국사회 불평등 현실

**발행일** 2022년 5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